



보도 일시	2022. 4. 5.(화) 10:00 (국무회의 개의시)	배포 일시	2022. 4. 4.(월) 14:00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	책임자	과 장 박성주 (044-215-5430)
		담당자	사무관 이해인 (haein85@korea.kr)

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·의결

- ① **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.0조원*** 중 ①지방재정 확충(11.3조원) → ②공적자금 상환(2.0조원) → ③채무상환(1.4조원) → ④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(3.3조원) 순(順)으로 활용

* 일반회계 총세입 438.4조원 - 총세출 417.7조원 - 이월액 2.6조원

- ② **큰 폭의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결산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 +40.8조원(GDP 대비 +2.2%p) 개선**

* 통합재정수지(조원):('20년 결산) △71.2 → ('21년 추경) △90.3 → ('21년 결산) △30.4(+40.8)

- ③ **순자산(자산-부채)은 재무결산 도입('11년) 이래 가장 큰 폭인 27.3% 증가한 643.5조원(전년대비 +138.1)**

* 증감률(%) : ('17)△5.1, ('18)△12.5, ('19)+25.4, ('20)△9.1, ('21)+27.3

- ④ **정부청사의 총 재산 가치는 8.1조원(세종청사 3조원 등), 최고가 물품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(458억원)**

□ 정부는 4.5일(화) 10:00,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「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」 등을 심의·의결 하였으며,

- 향후 국가결산보고서 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,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

□ 202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I. 수입·세출* 결산

* 일반·특별회계 대상,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(차입금 원금 상환)을 모두 포함하는 총계 기준으로 작성 ⇨ 일반·특별회계의 재정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

1. 총수입 (일반회계+특별회계)

* 내부거래, 보전지출 포함

□ (총수입) 전년 결산대비 58.7조원 증가(12.6%)한 524.2조원

- (국세수입)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전년대비 58.5조원 증가(20.5%)한 344.1조원
- (세외수입)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려오는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(△15.8조원)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180.1조원

<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결과 >

(단위 : 조원)

구 분	'20년	'21년		증 감			
	결산	예산 (2차추경 기준)	결산	'20년 결산 대비	(%)	21년 예산 대비	(%)
◆ 총수입	465.5	506.7	524.2	+58.7	12.6	+17.5	3.5
▶ 국세수입	285.5	314.3	344.1	+58.5	20.5	+29.8	9.5
▶ 세외수입	180.0	192.4	180.1	+0.1	0.1	△12.3	△6.4

2. 총세출 (일반회계+특별회계)

* 내부거래, 보전지출 포함

□ (총세출) 전년 결산대비 43.1조원 증가(9.5%)한 496.9조원

- 코로나 피해지원 및 방역대응, 경기회복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 집행

* 총세출 규모(조원) : ('17) 342.9 ('18) 364.5 ('19) 397.3 ('20) 453.8 **('21) 496.9**

- 전년도 이월액 등(2.5조원)을 포함한 예산현액(509.2조원) 기준 총세출 집행률은 97.6% 기록

* 집행률 추이(%) : ('17) 96.6 ('18) 96.8 ('19) 97.4 ('20) 98.1 **('21) 97.6**

3. 세계잉여금 (일반회계+특별회계)

* 내부거래, 보전지출 포함

□ 결산상 잉여금(총세입 - 총세출)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.3조원* 발생

* 총세입 524.2조원 - 총세출 496.9조원 - 다음연도 이월액 4.0조원

○ **(일반회계 세계잉여금)** 18.0조원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

< 2021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>

① 지방교부세 정산 6.1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5.2조원

↓

②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2.0조원(① 정산 후 잔액의 30%)

↓

③ 채무상환 1.4조원(①, ② 처리 후 잔액의 30%)

↓

④ 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3.3조원

○ **(특별회계 세계잉여금)** 5.3조원으로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*

* '22년 본예산에 기 계상된 0.5조원 대비 초과수입 규모는 4.8조원이며, 제1차 추경(2.21일 국회 확정) 재원으로 **2.3조원**(농특회계 1.9조원 등)은 **既 활용**

** 나머지 이입분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세출의 추가 소요나 세입 결손분 보전에 활용

< 2021회계연도 총세입·총세출 결산 결과 >

(단위 : 조원)

구 분	예산 (2차추경 기준)	총세입 (A)	총세출 (B)	결산잉여금 (C=A-B)	이월 (D)	세계잉여금 (E=C-D)
◆ '21년	506.7	524.2	496.9	27.3	4.0	23.3
▶ 일반회계	424.4	438.4	417.7	20.6	2.6	18.0
▶ 특별회계	82.3	85.8	79.1	6.7	1.3	5.3
◆ '20년	460.0	465.5	453.8	11.7	2.3	9.4
▶ 일반회계	389.1	392.4	385.2	7.1	1.4	5.7
▶ 특별회계	70.8	73.1	68.6	4.5	0.9	3.6
◆ 증 감	46.7	58.7	43.1	15.6	1.7	13.9
▶ 일반회계	35.3	46.0	32.5	13.5	1.2	12.3
▶ 특별회계	11.5	12.7	10.5	2.2	0.4	1.7

4. 재정수지* (일반회계+특별회계+기금)

* 내부거래, 보전지출 제외

*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을 포함하되,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(차입금 원금 상환, 여유자금 운용)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 총수입·총지출 산출

⇒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정책의 효과·결과 분석

□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¹⁾ 에도 불구하고,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²⁾ 로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

1) (총지출) 기금을 포함한 집행규모는 600.9조원(전년대비 9.3% 증가)

2) (총수입) 570.5조원(전년대비 19.2% 증가) = 국세수입(344.1조원, 20.5%),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(124.5조원, 24.5%) 등

○ (통합재정수지(총수입-총지출)) 적자폭이 전년 대비 40.8조원 개선되어 △30.4조원(GDP 대비 △1.5%) 발생

○ (사회보장성기금*수지) 국민연금수지 흑자폭 확대(18.2조원)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.3조원 증가한 60.1조원

* 국민연금 64.1조원, 사학연금 1.2조원, 고용보험 △6.7조원, 산재보험 1.5조원

※ 관리재정수지(통합재정수지-사회보장성기금수지) : 적자폭이 전년 대비 21.5조원 개선되어 △90.5조원(GDP 대비 △4.4%) 발생

< 2021회계연도 재정수지 >

(단위 : 조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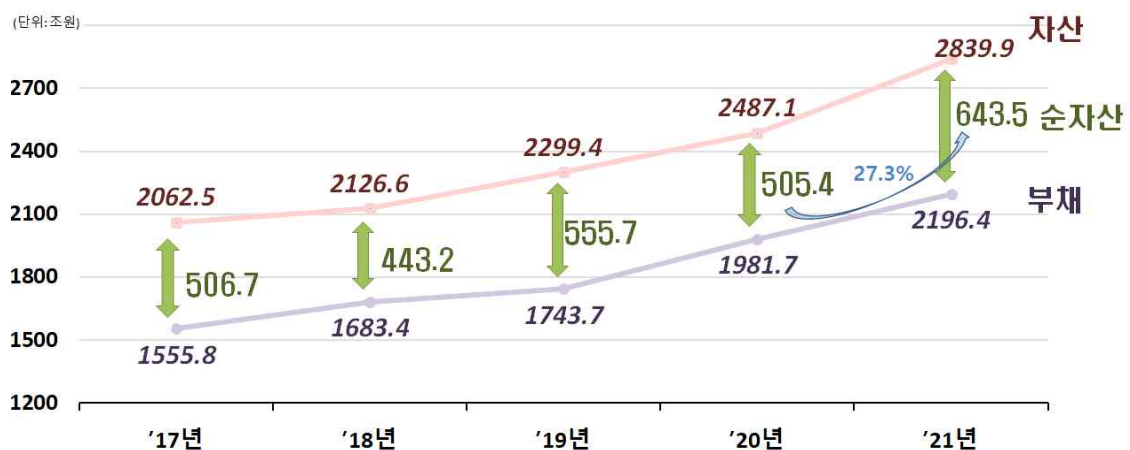
구 분	'20년	'21년		증 감			
	결산	예산 (2차추경 기준)	결산	결산대비	(%)	예산대비	(%)
◆ 총수입	478.8	514.6	570.5	+91.7	19.2	+55.9	10.9
◆ 총지출	549.9	604.9	600.9	+51.0	9.3	△4.0	△0.7
◆ 통합재정수지 (GDP 대비 비율)	△71.2 (△3.7)	△90.3 (△4.4)	△30.4 (△1.5)	+40.8 (+2.2%p)		+59.9 (+2.9%p)	
◆ 사회보장성기금 수지	40.8	36.2	60.1	19.3		23.9	
◆ 관리재정수지 (GDP 대비 비율)	△112.0 (△5.8)	△126.6 (△6.2)	△90.5 (△4.4)	+21.5 (+1.4%p)		+36.1 (+1.8%p)	

Ⅱ. 국가 재무제표 (자산 및 부채)

1. 개 요

- 국가자산(2,839.9조원)이 부채(2,196.4조원)보다 크게 증가하여 재무결산 도입('11년)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순자산이 증가(138.1조원, 27.3%)

< 최근 5년간 자산·부채·순자산 증감 추이 >



< 2021회계연도 자산·부채 결산 현황 >

(단위 : 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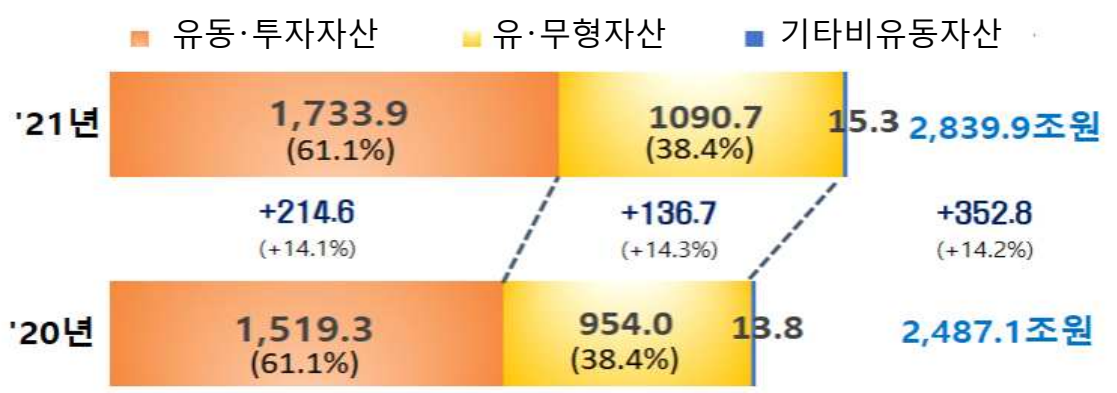
구 분	'20년 (A)	'21년 (B)	증감액 (B-A)	%	비 고
순자산(자산-부채)	505.4	643.5	138.1	27.3	
자 산	2,487.1	2,839.9	352.8	14.2	
①유동자산	504.0	566.0	62.0	12.3	·현금 및 예금 등
②투자자산	1,015.3	1,167.9	152.6	15.0	·장기성예금, 유가증권
③일반유형자산	604.1	705.6	101.5	16.8	·토지, 건물, 구축물 등
④사회기반시설	347.9	382.6	34.7	10.0	·도로, 철도, 항만, 댐 등
⑤무형자산	2.0	2.5	0.5	25.0	·소프트웨어 등
⑥기타비유동자산	13.8	15.3	1.5	10.9	·장기미수채권 등
부 채	1,981.7	2,196.4	214.7	10.8	
①유동부채	167.9	187.9	20.0	11.9	·1년미만 국고채, 차입금, 청약저축 등
②장기차입부채	658.5	756.1	97.6	14.8	·국고채, 공채, 차입금 등
③장기충당부채	1,102.6	1,199.4	96.8	8.8	·연금, 보증충당부채 등
(연금충당부채)	(1,044.7)	(1,138.2)	(93.5)	(8.9)	·미래 공무원·군인연금 지급액 추정치
④기타비유동부채	52.7	53.0	0.3	0.6	·장기미지급금(BTL 시설임대료)

2. 자 산

□ **(총액)** 2,839.9조원으로 전년 대비 352.8조원 증가(14.2%)

- (유동·투자자산)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,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확대 등으로 214.6조원 증가
- (유·무형자산) 토지·건물, 소프트웨어 등 자산 취득과 도로·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평가 등으로 136.7조원 증가

< 자산의 구성 및 증감 >



□ **(①유동¹⁾·②투자자산²⁾)** 1,733.9조원으로 전년 대비 214.6조원 증가 (14.1%)

1) (유동자산) 1년 이내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재정지출 및 일시적 자산운용을 위해 현금, 예금, 적금 및 금융상품 등으로 예치한 자산

2) (투자자산) 1년 초과하여 자산운용 및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, 채권, 주식·출자금, 장기대여금 등으로 구성

⇒ 대부분 기금 여유자금 운용,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,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특별융자 등 정부의 정책금융 대출 등으로 운영되며, 자산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확산되도록 자산운용

- 국민연금기금 등 기금여유재원의 전략적 투자¹⁾를 통한 운용수익 증가²⁾ 등 유동·투자자산은 전년 대비 186.2조원 증가

1) 국민연금기금은 전략적 재무투자,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최근 3년 평균 10.57% 수익률 달성하여 벤치마크(비교평가 대상) 대비 0.52%p 초과 달성

2)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(률) : ('20) 72.1조원(9.7%) → ('21) 91.2조원(10.77%)

-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('21년 10.8조원, +65.0%),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융자 확대로 융자금 채권은 전년 대비 16.2조원 증가

- 소상공인 회복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사업체 수
: ('20) 34.6만개 → ('21) 45.3만개(+10.7만개)
-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지원자 수
: ('20) 60.7만명 → ('21) 61.9만명(+1.2만명)

- 도로·철도 등 건설(도로공사 6.4조원), 행복주택 건설 및 중소기업 융자 재원 공급을 위한 정부출자 확대(1.1조원)로 전년 대비 8.5조원 증가

□ **(^④일반유형자산*)** 705.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1.5조원 증가(16.8%)

- * 국가 행정 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국민의 문화 증진, 치안 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(국립공원 등), 건물(박물관 등)과 기타 행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구축물, 기계장치, 집기·차량(소방차 등) 등으로 구성

- (토지) 신규 취득, 자산 재평가 등으로 토지가액 92.2조원 증가

1」 도로·철도 등 부지 확보(+65km²), 국유림 확대(+28km²) 등을 통해 국유재산 면적은 전년 대비 116km² 증가(여의도 면적의 40배)

2」 토지 재평가 의무주기(매 5년, '16년 실시) 도래로 '21년 토지와 함께 건물·공작물 등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산 가치를 현행화

- (건물·구축물) 신규 취득 및 감가상각 등으로 건물·구축물 가액 등 △0.4조원 감소

- * 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찰서 수 : ('20) 258개 → ('21) 259개(+1개, 세종)

- (기계장치, 차량운반구 등) 신규 취득, 감가상각 등으로 1.9조원 증가

- * 신속한 재난구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소방차량 수(국유재산 기준)
: ('20) 189대 → ('21) 197대(출동용 차량 +8대)

- (전비품)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등 군수품 4.4조원 증가

□ **(^④사회기반시설*)** 382.6조원으로 전년 대비 34.7조원 증가 (10.0%)

*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도로, 철도, 항만, 댐, 공항, 하천, 상하수도 등으로 구성

○ SOC분야 재정투자 확대('21년 26.6조원, +16.2%) 등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자산*이 전년 대비 34.7조원 증가

* 항만 1.8조원, 하천 27.0조원, 철도 13.6조원, 상수도 5.8조원 등

○ SOC분야 투자 확대 성과

- 고속도로 조성 : ('20) 4,555km → ('21) 4,585km(+30km)
- 국도 조성 : ('20) 14,123km → ('21) 14,227km(+104km)
- 일반철도 조성 : ('20) 3,498km → ('21) 3,545km(+47km)
- 상/하수도 조성 : ('19) 22.2/ 16.0만km → ('20) 22.8/ 16.3만km(+0.6/0.3만km)

* '21년 상/하수도 연장 길이는 연말 통계연보에서 발표 예정

□ **(^⑥무형자산*)** 2.5조원으로 전년 대비 0.5조원 증가 (25.0%)

* 일정기간 독점적·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 및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자산으로 산업재산권, 광업권, 소프트웨어(국가 재정정보 시스템) 등으로 구성

○ 혁신성장을 위한 R&D예산('21년 27.5조원, +13.2%) 및 정보화예산('21년 5.4조원, +20.0%) 확대 등에 따라 특허권¹⁾, 소프트웨어²⁾ 등 무형재산 3,481억원 증가

1) 특허권 : ('20) 1,486건 → ('21) 1,558건(+72건)

2) 소프트웨어 가치 : ('20) 7,157억원 → ('21) 10,076억원(+2,919억원)

□ **(^⑥기타 비유동자산)** 15.3조원으로 전년 대비 1.5조원 증가 (10.9%)

○ 장기미수채권 1.0조원, 장기선급금* 0.4조원 증가 등

* 주로 국방부·방위사업청의 군수품 구매계약에 따른 장기선급금 증가

3. 부 채

(1) 주요 증감요인

- **(총액)**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, 비확정 부채* 증가로 전년 대비 214.7조원(10.8%) 증가한 2,196.4조원

* 재무제표상 부채는 성격에 따라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·금액이 확정된

① **확정부채**(국공채·차입금 등)외에도 ② **비확정부채**(연금충당부채 등)가 포함

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상 부채 증감 요인 (단위:조원)

구 분	'20년 (A)	'21년 (B)	증감 (B-A)	%
■ 부채 총계 (① + ②)	1,981.7	2,196.4	214.7	10.8
①확정부채 (국공채·차입금 등)	717.6	818.2	100.6	14.0
②비확정부채	1,264.1	1,378.2	114.1	9.0
- 연금충당부채 (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)	1,044.7	1,138.2	93.5*	8.9
- 기타 충당부채 (보증·보험 등)	57.9	61.2	3.3	5.7
- 기타 발생주의 부채 (청약저축 등)	161.5	178.8	17.3	10.7

* 연금납입기간 증가 등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20.2조원(전체 증가분의 22%)

- **(①확정부채)**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(49.8조원)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0.6조원(14.0%) 증가한 818.2조원

-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(+3.3조원),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(+1.7조원) 잔액도 전년 대비 증가

* 국민주택채·외평채는 융자금,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

- **(②비확정부채)**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·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 (연금충당부채) 증가(+93.5조원)¹⁾,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²⁾ 예수금 증가(+12.9조원) 등으로 전년 대비 114.1조원(9.0%) 증가한 1,378.2조원

1) (공무원연금) 74.8조원, (군인연금) 18.7조원

2)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(96.3조 원)은 대응 금융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 가능

[2] 연금충당부채(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) 증감 사유

공무원·군인 연금 충당부채(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) 개념

- **(개념)** '21.12.31.기준, 재직 공무원의 미래 납부 기여금 등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,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

■ (산출방법)

$$\text{* 연금 충당부채 (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)} = \sum_{1}^N \frac{\text{미래 연금액}}{(1+r)^n} \quad (r: \text{할인율}, n: \text{할인가간})$$

- ▶ **(할인율)**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를 현재 금액으로 계산하기 위해 **돈의 가치(이자율)**를 빼는 비율 즉, 미래의 금액을 **할인(discount)**해서 현재의 금액으로 만드는 것

* 적용 기준 : 국고채 수익률(1년·3년·5년·10년·20년물)의 최근 10년 평균값 적용('21년 2.44%)

- ▶ **(할인율 특성)** 이자율이 커질수록 이자가 많이 붙어 미래에 받을 금액이 커지는 것처럼, 할인율이 커질수록 할인으로 깎이는 금액이 커져 현재의 금액(현재가치)은 작아짐
(할인율 ↑ =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↓, 할인율 ↓ =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↑)

⇒ 연금충당부채는 ①재무적 가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부분과 ②근무기간 증가 등 실질적 요인에 의해 변동되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검토·분석할 필요

① 실질적 요인*에 따른 증가분 : 20.2조원 (전체 증가분의 22%)

* 재직자의 연금납입기간 증가 등으로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변동

- (재직자 연금 납입기간 증가 효과 : 39.9조원) '21회계연도 1년간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→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증가 요인
- (수급자 연금수령 효과 : △19.7조원) 수급자에게 '21회계연도 1년간 연금지급 →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감소 요인

② 재무적 효과*에 따른 증가분 : 73.3조원 (전체 증가분의 78%)

* 할인율(r)과 할인가간(n) 변동에 따른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변동

- (할인율(r) 하락 효과 : 56.9조원) 지난해 할인율이 하락(2.66 → 2.44%, 0.22%p)하여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증가(전체 증가분의 60.9%)
- (할인가간(n) 감소 효과 등 : 16.4조원) '21회계연도 경과로 할인가간 1년 감소(n → n-1) →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증가

<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(연금충당부채) 증감사유 > (단위 : 조원)

증감사유	'21년도 증감액			비 고
	계	공무원	군인	
합 계	93.5	74.8	18.7	
실질적 요인	20.2	13.0	7.2	전체 증가분의 22%
①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	39.9	29.6	10.3	'20년 대비 재직공무원의 근무연수 1년 증가로 예상되는 미래연금 증가 추정액
② 연금 지급액 제외	△19.7	△16.6	△3.1	'20년 추계치에서 '21년 연금수급자(퇴직 공무원)에게 지급한 연금액 제외분
재무적 요인	73.3	61.8	11.5	전체 증가분의 78%
① 할인율 하락	56.9	43.9	13.0	2.66 → 2.44%로 0.22%p 하락
② 현재가치 환산 효과	21.3	17.0	4.3	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할인기간이 1년 단축(분모 감소)됨에 따른 증가분
③ 임금·물가상승률 변동	-	-	-	'21회계연도는 '20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적용으로 변동 없음
④ 기타	△4.9	0.9	△5.8	-

[3] 국가채무(debt)와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(liability) 비교

- **(^①국가채무, D1)**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며, 중앙·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·관리하는 재정지표로 활용
 - **(개념)**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^①중앙·지방정부가 상환의무가 있고, ^②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되어 있어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
 - **(규모)** 작년 채무는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,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2차례 추경(49.8조원)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120.6조원 증가

<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> (단위 : 조원)

구 분	'20년 (A)	'21년			증 감	
		본예산	추경(B)	결산(C)	전년(C-A)	추경(C-B)
1. 중앙정부	819.2	928.5	937.8	939.1	120.0	1.3
(GDP 대비 비율)	(42.4)	(45.9)	(45.9)	(45.6)	(3.2%p)	(△0.3%p)
■ 국 채	815.2	926.1	935.5	937.0	121.8	1.6
■ 차입금·국고채무부담행위	4.0	2.4	2.3	2.1	△1.9	△0.2
2. 지방정부*	27.5	27.5	27.5	28.1	0.6	0.6
3. 국가채무(D1, 1+2)	846.6	956.0	965.3	967.2	120.6	1.9
(GDP 대비 비율)	(43.8)	(47.3)	(47.3)	(47.0)	(3.2%p)	(△0.3%p)

* 지방정부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, 잠정치('22.6월 이후 지자체 결산 확정)

- **(②국가재무제표 상 부채)** 발생주의 회계를 기초로 미래 재정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표로 활용
- **(개념)** 국채·차입금 등 확정부채 이외에 청약저축액(예수금),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등 비확정부채까지 포함
- **(규모)**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 2,196.4조원에서 이 중 국가가 상환 의무를 갖는 확정부채는 818.2조원* (전체 부채규모 중 37.3%)
- * 중앙정부의 확정부채(818.2조원)는 중앙정부 국가채무(D1, 939.1조원)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·공채를 제외한 순 상환의무를 갖는 부채 규모

< 미래연금 추계치를 「나라빚 (National debt)」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>

- ① 지급시기·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로서 한 해에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라, 장래 약 7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출 소요가 분산
- ② 재직자(공무원·군인)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, 연금지출 총 규모만 추정한 금액
→ 연금지출은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우선 충당
- ③ 우리나라의 공무원·군인 연금지급액은 GDP의 1% 미만으로 OECD 평균 1.5%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
* 연금지출: '17년 15.9조원 → '18년 16.9조원 → '19년 18.0조원 → '20년 19.0조원 → '21년 20.2조원
(GDP 대비) (0.97%) (0.95%) (0.94%) (0.99%) (0.98%)
- ④ 비확정부채 특성을 감안하여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는 IMF 등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 간 비교 시 사용되는 재정통계(부채 등)에서 제외

Ⅲ. 결산 부속서류 특이사항

- ◆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중 하나인 **국유재산 관리운용 보고서** 및 **물품 관리운용 보고서**를 통해 **국유재산의 가치 확인 가능**

□ 정부청사의 재산 가치는 ?

- 4곳의 정부청사 재산가치 총합은 8.1조원
-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(1~3단계)가 3.0조원으로 1위

(단위 : 억원)

순위	구 분	장부가액			비 고
			토지	건물	
1	세종청사	30,149	16,559	13,590	1, 2, 3단계 전체
2	대전청사	26,781	25,840	941	-
3	서울청사	13,648	12,600	1,048	외교부 별관 포함
4	과천청사	10,323	9,741	582	-

□ 철도의 재산 가치는 ?

- 철도 중 재산가치가 가장 큰 경부고속철도는 전체 정부청사 재산 가치와 동일한 8.1조원
- 경부선은 7.8조원으로 2위

(단위 : 억원)

순위	구 분	장부가액			비 고
			토지	공작물	
1	경부고속철도	81,480	18,856	62,624	서울 ~ 부산
2	경부선	78,086	35,937	42,149	서울 ~ 부산
3	경의선	56,240	47,202	9,038	서울 ~ 도라산

* 토지, 공작물(노반, 궤도, 전력, 통신, 신호) 가액 합계

□ 정부가 보유한 **최고가 무형자산**은 ?

- 국토교통부의 **국도 지능형 교통체계(ITS*)**가 1위

* **I**ntelligent **T**ransport **S**ystem :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·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·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

- '21년 개통한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2위로 진입

(단위 : 억원)

순위	구 분	장부가액
1	국도 지능형 교통체계 (국토부)	1,810
2	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(기재부)	1,017
3	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(복지부)	766

□ 정부가 보유한 **최고가 물품**은 ?

- 기상청의 **슈퍼컴퓨터**가 **458억원**으로 1위

(단위 : 억원)

순위	구 분	장부가액
1	주문제작 슈퍼컴퓨터 (기상청)	458
2	재난안전통신망 (행안부)	456
3	해안 열상 관측 장비 (경찰청)	91
4	컴퓨터서버 (국회)	84
5	엑스레이화물탐색기 (관세청)	80

※ 세부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의 각 부문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담당과	담당자 연락처	
세입세출	회계결산과	책임자	박성주 과장(044-215-5430)
		담당자	이해인 사무관(haein85@korea.kr)
			박미경 사무관(pk99@korea.kr)
			최규철 주무관(kyuchul84@korea.kr)
			김도연 주무관 (yeon27@korea.kr)
재무제표 (연금충당부채)	회계결산과	책임자	박성주 과장(044-215-5430)
		담당자	김연대 사무관(ydkim2012@korea.kr)
	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	책임자	최교목 과장(044-201-8410)
		담당자	박희준 사무관(heejune1211@korea.kr)
	국방부 군인연금과	책임자	이향섭 과장(02-748-6660)
		담당자	장재영 주무관(yjang1980@mnd.go.kr)
세계잉여금 국가채권	국고과	책임자	강대현 과장(044-215-5110)
		담당자	박정상 사무관(parkjeongsang@korea.kr)
			최지원 사무관(cjw0801@korea.kr)
재정수지 국가채무	재정건전성과	책임자	박철건 과장(044-215-5740)
		담당자	김민호 사무관(jadalake@korea.kr)
			문혁완 사무관(laza78@korea.kr)
세입	조세분석과	책임자	김문건 과장(044-215-4120)
		담당자	박병선 사무관(ghibli80@korea.kr)
국유재산	국유재산 정책과	책임자	노중현 과장(044-215-5150)
		담당자	유양희 사무관(haenae@korea.kr)
물품	국유재산 조정과	책임자	류중재 과장(044-215-5250)
		담당자	김지수 사무관(jsarah13@korea.kr)